

Issue Comment

2018. 9. 3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8월 다섯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0.2%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13.1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0.7% WoW), 소맥(+0.7% WoW), 대두(-1.1% WoW), 원당(+3.6% WoW) 기록. 옥수수는 건조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EU의 옥수수 수율 전망치 기준 113.6부셸/에이커에서 112.6부셸/에이커로 하향 조정되며 가격 상승 이끌. 다만 미국 옥수수 작황 상태가 양호해 기록적인 옥수수 생산량이 관측되면서 상승폭 제한. 소맥은 세계 최대 소맥 수출국인 러시아가 기상악화로 인한 소맥 수확량 감소로 수출 제한 조치가 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격 상승 견인. 미국 블밀 수확 진행률이 77%인 점은 전년 동기 73%의 진행률을 감안할 때 가격 상승폭 제한 요소로 작용. 대두는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중국의 대두박수요 감소 우려가 확대되며 최근 대두 가격 하락 압박 요소로 작용. 미국 대두 수확기를 앞두고 공급 확대에 따른 부담감도 가격 하락 지지. 원당은 EU 사탕무 생산 차질로 인해 런던 백설탕 가격 프리미엄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상승 지지. 브라질과 유럽에서의 원당 공급 감소로 인해 18/19 전세계 원당 시장 공급 과잉이 일부 흡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원당 가격 상승 요소로 작용.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점차 생산 재개 및 새로운 캐파 증설 출현. 공급 압박 심화. Dongxiao 9월 신공장 가동 예정. Qifeng 10월 라이신 시운전 예정. Chengfu 생산 재개 시작. Baicheng도 4분기 라이신 생산 가동 예정. 메티오닌은 시장 공급 과잉 상황하에 최근 가격 하락. Ningxia Ziguang 7월 중순부터 15일간의 유지 보수 일정으로 출하량 줄었으나 곧 생산 재개 예정. 9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사료 수요가 증가되는 시점. 순수입이 감소증임을 감안하면 단기간 가격 반등 가능. 쓰레오닌은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량 감소했으나 재고 압력은 여전한 상황. 중추절과 국경일이 근접해져 단기간 재고 압박 가능. Dacheng 판매 가격도 하락. Yipin 도 생산 보류 상태. Wanli Rundan은 9월 생산 재개. 트립토판은 생산 감축으로 인한 제한된 재고와 중국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안정 전망. Dragon 생산 정상화. Yipin 등 일부 제조업체 생산 중단 및 9월 생산 재개 예정. 국내 이벤트는 1. 중국양돈, 인천공항 입국자가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8/3일 심양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반응 확인 2.CJ프레시웨이, 돈카츠 체인점 '아카비돈카츠'와 식자재 물류계약 체결 3.CJ제일제당, 쉬완스컴퍼니' 인수 협약 이르면 오는 9월 완료 가능. 인수 후 CJ대한통운은 DSC 로지스틱스와 협력해 미현지 유통망 완성 4.CJ제일제당, 미국 냉동식품 전문업체 '카히키'와 독일 '마인프로스트' 인수. '비비고' 브랜드로 냉동식품 시장 지위 강화 계획 5.농심, 라면 '안성당면' 출시 이후부터 188월까지 누적 판매량 150억개 돌파해 매출 3조 5000억원 기록

2. 금주 전망

음식료: 2Q18 Review 대부분 실적 기대치 회하하며 부진한 실적 기록. 실적호조 대상, 빙그레, 기대치 부합 CJ제일제당, 매일유업

음식료 시장은 전주대비 부진 지속. KTNG는 수출 부진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부진.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는데 우려만 재부각. 하반기에는 배당 (현금 2주원 보유), 내년 수출 V자 반등 예상(13-14년 사례 참고). CJ제일제당은 M&A 구체화 중. 자금조달 문제 없으며 딜 구조 3가지 중 고민하고 있음. 해외바이오 시황은 비단은 확인했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은 어려운 상황. 다만 하반기 CJ CJ 실적은 가공, 소재, 사료 중심으로 기대치 부합 예상실적 뒷받침되는 가운데 M&A 이슈로 상승여력 확대. 오리온은 대주주 주가 하락 유도 리스크 소멸. 3분기 실적 기대치는 많이 낮아졌고 주가 벨류에이션도 15배인 상황. 최근 주가 급락은 중국에서 사업을 19년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 3~4분기 회복여부에 따라 10만원 바닥 형성 후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롯데푸드는 실적 불확실성은 적음 다만 자사주 관련 오비행 이슈가 우려스러움.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은 적다는 점도 우려 요인. 농심, 롯데칠성은 모멘텀 부재 농심은 가격 인상 검토할 수 있지만 오뚜기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환경에서 쉽지 않음. 롯데칠성은 맥주 사업 부진해소가 시급한 상황. 매일유업은 실적 변동성은 적은데 계절적 성수기로 기대치 상회 가능성도 열어아어야 한다고 봄. 중국은 19년 까지 성장 여력 있음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대상 (001680)

회계변경 감안 시 2분기 매출액 4~5% 성장. 김치, 장류, HMR 카테고리가 매출 성장 주도. 3Q18 추석 선물세트 매출과 김치 부문이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 비용 효율화 정책(전체 판촉비를 유지하면서 카테고리별로 비중 조절)으로 하반기 실적 성장 흐름 지속 예상. 해외부문은 인니 전분당 사업 수익성 점진적인 개선. 베트남 실적 유지 전망. 식품부문은 매출액 회계 변경 222억원 차감. 건강사업부 매각으로 120억원 감소. 동일 기준 적용 시 매출액 4~5% 성장. 소재부문은 전체적으로 10% 이상 성장. 전분당 12% 성장 P.Q 모두 성장. 바이오 13% 성장 MSG보다는 기타바이오 제품 매출 성장이 견인. 베스트코 적자 축소는 비용 개선때문. 매입원가 낮추고 대량 구매하고, 판가 올리고 비용 절감하는 전략. 인건비 효율화, 채권관리 강화 등 3분기부터 마진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 해외법인은 PT미원 전분당, MSG/기타 매출 비중은 4:6. 전분당 가동률은 100% 수준 유지, 하반기 2Q18 전분당 매출규모가 유지되며 수익성 점진적인 개선 예상

롯데푸드 (002270)

동일기준 2Q18 매출액 동향, 유지식품 3~4% 성장, 빙과 등 4% 증가, 육가공 1~2% 감소. 3Q18 빙과, 델리카 부문의 실적 견인 지속 예상. 델리카 17년 베이스가 하반기 높아지면서 매출 증가세는 1분기 이후 원회되는 추세. 하반기는 매출보다는 수익성 개선효과가 실적 성장 주도할 전망. 자시주 처분 방안은 아직 미정. 유지부문(식용유/마가린/소트닝/휘핑크림, 버터 등) 가공유지는 팜유/대두유 가격 하락으로 판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처 확대로 수량 성장 지속. 매출액 유지, 영업이익 유지 흐름 하반기 예상. 빙과/파스퇴르 쪽은 유지부문(식용유/마가린/소트닝/휘핑크림, 버터 등) 가공유지는 팜유/대두유 가격 하락으로 판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처 확대로 수량 성장 지속. 매출액 유지, 영업이익 유지 흐름 하반기 예상. 육가공은 햄버거 패티 매출 500~600억원 수준. 가격 인상에도 수량 부진으로 감소. 햄버거 병 사태 이후에 햄버거 시장 자체가 위축된 상황. 3Q17 부터 햄버거 영향이 본격화 됐으므로 하반기는 낮은 베이스에 따른 전년비 개선 효과 기대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9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9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9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